

-(으)ㄴ 직하다

~할 만해 보인다; 그럴 법하다

같은 모양을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단어로 익혀야 하는 소수의 합성 형용사이고, 다른 하나는 ‘그럴 법하다’는 뜻의 생산적인 문형입니다. 띄어쓰기로 둘을 구별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합성 형용사	붙여 씀	먹다 → 먹음직하다
합성 형용사	붙여 씀	믿다 → 믿음직하다
일상 어휘	바람직하다	바람직함, 권할 만함
그럴 법함	띄어 씀	있음 직하다
명사 앞	-(으)ㄴ 직한	있음 직한 일
유의어	-(으)ㄴ 법하다	있을 법한 일

■ 언제 쓰나요

합성 형용사는 붙여 쓰며 일반 단어처럼 씁니다: 먹음직하다(먹기 좋아 보인다), 믿음직하다(믿을 만하다), 바람직하다(바라는 대로 좋다). 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문법보다 어휘로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.

생산적인 문형은 띄어 쓰며 ‘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’는 뜻입니다: 충분히 있음 직한 일이다 — 충분히 그럴 법하다는 뜻입니다.

이 용법은 -(으)ㄴ 법하다와 거의 겹치며, 대개 어느 쪽을 써도 됩니다. 두 용법 모두 격식체이거나 문어적입니다. 바람직하다는 예외로, 일상 어휘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글과 말에 늘 등장합니다.

■ 예문

- 1 빵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먹음직해 보였다.
- 2 그는 어떤 일이든 맡길 만한 믿음직한 사람이다.
- 3 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바람직합니다.
- 4 충분히 있음 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
- 5 직접 만들었다고 해도 믿음직한 솜씨였다.
- 6 누구에게나 일어남 직한 실수였어요.

■ 비교

-(으)ㄴ 법하다
‘그럴 법하다’의 뜻에서 둘은 비슷합니다. 현대 글에서는 법하다가 좀 더 흔하고, -(으)ㄴ 직하다는 더 예스럽게 들립니다.
있을 법한 이야기 / 있음 직한 이야기

-(으)ㄴ 만하다
만하다는 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, 합성어 먹음직하다는 겉보기에 그럴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말합니다.
먹을 만해요. (먹을 수 있을 정도다) / 먹음직해요. (먹음직스러워 보인다)

바람직하다
따로 구분해 둘 만합니다. 원래 문형에서 벗어나 ‘바람직하다’는 뜻의 일반 어휘가 되었으며, 정책이나 조건에서 늘 씁니다.
바람직한 태도 / 바람직하지 않습니다

■ 주의

- ✗ 빵이 먹음 직해 보였다.
- 빵이 먹음직해 보였다.
먹음직하다는 하나의 합성 형용사이므로 붙여 씁니다. 띄어 쓰는 것은 ‘그럴 법하다’ 용법입니다.
- ✗ 충분히 있음직한 일이다. — ‘그럴 법하다’는 뜻으로 (×)
- 충분히 있음 직한 일이다.
그럴 법하다는 뜻에서 직하다는 보조 용언이므로 띄어 씁니다.
- ✗ 그 사람은 가음직하다.
- 그 사람은 믿음직하다.
합성 형용사는 먹음직하다, 믿음직하다, 바람직하다 등 몇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. 새로 만들어 쓸 수 없습니다.